

출 장 자	소 속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성 명 및 직 위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조혜승 부연구위원
출장기간	2019. 6. 16(일) - 6. 18(화) [2박 3일]		출장지	중국 상해
출장 목적	<p>□ 본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수탁을 받아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한·중 실태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p> <p>□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환경변화와 ICT 신산업 육성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부족현상과 경력개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최초 여성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정책과 현황에 대해 한국과 비교하여 연구하고자 함.</p> <p>□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출장은 동 사업 내에 계획 중인 총 2회의 현지조사 중 첫 번째 조사로써,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한·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과학기술 특화 대학인 상해교통대의 공동연구진과 연구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함.</p>			
경비 부담	해당 수탁사업연구비 약 5,770 천원			
주최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회의/방문 기관명	협력기관/참석자		회의내용	
여성과학기술인 인력양성 한·중 세미나 (2019. 6. 17(월), 16:00~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胡洁人 (Jane Hu), 同济大学(동제 대학교) 교수 ▪ 胡洁人 (Jane Hu), 上海近岸生物科技有限公司 박사 ▪ YangLi Ma, 同济大学(동제 대학교) 입학처 센터장 ▪ 이국봉 상하이 교통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연구사업 소개 □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및 정책 공유 □ 한·중 여성과학기술인 실태조사 설문지 문항 논의 	
현지 공동연구진 회의 (2019. 6. 17(월), 20:00~2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국봉 상하이 교통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통계자료 공유 □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분석가능 정책 논의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 및 간담회 (2019. 6. 18(화), 11:00~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이광호 부총영사 부부, 호효분 상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연구사업 소개 및 협력 방안 논의 □ 본원과의 네트워킹 기반 구축 	

해외출장 복명서

-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세미나 개최
- 현지 공동연구진 회의

2019.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정책연구실 여성노동연구센터

- 과 제 명: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한·중 실태분석 연구
- 출장지역: 중국 상해
- 출장자(총2인):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조혜승 부연구위원
- 방문기간: 2019년 6월 16일(일)(출국) → 6월 18일(화)(입국)
- 비용부담: 해당 수탁연구사업비

1. 목적

- 4차 산업혁명으로의 환경변화와 ICT 신산업 육성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부족현상과 경력개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에 반해 중국은 2015년 ‘투유유 박사’ 등 최초 여성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지만,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진로와 경력개발에 대해서 구체적 현황이 연구되고 있지 않음.
- 상해는 아편전쟁 이후 처음 서양문물을 접한 곳으로 중국 어느지역 보다 개방적이며, 시진핑의 국가도전비약에 따라 상해 및 상해인접 지역인 항주, 소주가 IT집중 도시로 발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대내외 환경을 갖춘 곳이라 판단하였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한·중 실태분석 연구」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수탁을 받아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됨.
- 이러한 배경 하에 진행되는 이번 출장은 동 사업 내에 계획 중인 총 2회의 현지조사 중 첫 번째 조사로써,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한·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과학기술 특화 대학인 상해교통대의 객원연구원과 연구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함.
 - 세미나 개최 : 한·중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공유하여 관계정립 및 ICT 신산업 동력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 현지 공동연구진과 회의 : 과학기술 특화대학인 상해교통대학의 이국봉 교수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

2. 출장기간

□ 2019년 6월 16일(일) ~ 6월 18일(화) (2박3일)

3. 방문 일정(안)

일 자		지 역	일 정	비 고
6.16(일)	16:20 (출발) ↓ 17:30 (도착)	인천(ICN) ↓ 중국(상해 PVG)	인천국제공항 ↓ 중국 상해 푸둥공항	▪ KE5885 (대한항공)
6.17(월)	오전	상해	▪ 세미나 개최 준비 ▪ 여성과학기술인 인력양성 한·중 세미나 개최 - 발표 및 논의 - 한·중 실태조사 설문지 개발 논의 ▪ 세미나 참석자 만찬	▪ 레 스위트 오리엔트 번드 상하이, VIP 미팅룸 (2F)
	오후		▪ 현지 공동연구진 회의: 중국 객원연구원(이국봉 교수) 보고서 구성 및 분석가능 정책 논의	
6.18(화)	오전	상해	▪ 연구진 회의 ▪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방문 및 부총영사 미팅	▪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오후 17:40(출발) ↓ 20:45(도착)	중국(상해 PVG) ↓ 인천(ICN)	중국 상해 푸둥공항 ↓ 인천국제공항	▪ KE5880 (대한항공)

* 출장 계획서의 기존 일정이 현지 전문가 및 공동연구진의 사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동되었음.

4. 해외출장자 명단

	소 속	부 서	직 위	이 름	역할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오은진	세미나 개최 및 기관방문, 연구진 회의 총괄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조혜승	세미나 발표 및 연구진 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2019. 6. 17(월), 16:00~20:00 / 레 스위트 오리엔트 번드 상하이, VIP 미팅룸 (2F)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조혜승 부연구위원
- 중국 참가자: 胡洁人(Jane Hu) 동제 대학교 교수, 李佳(Jia Li) 박사 (이상 발표자), 이국봉 교수(본원 객원 공동 연구원), YangLi Ma 동제 대학교 입학처 센터장(참석자), 장지혜 중한 통역사

□ 프로그램

시간	내용
16:00-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소개 및 인사 • 개회사 및 본원 사업 소개: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16:10-17:30	<p>발표1: 한국의 여성과학기술분야 인력 정책 검토 - 조혜승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p> <p>발표2: 여성 과학 기술자의 우세를 발위하다. 새로운 시대의 과학기술 경제 발전을 추진하다 (중한 번역 제목) - 胡洁人 (Jane Hu), 同济大学(Tong Ji University)</p> <p>발표3: 중국 여성 과학 종사자의 현황 및 정책 (중한 번역 제목) - 李佳(Jia Li) 박사, 上海近岸生物科技有限公司(CytoCares)</p>
17:30-18:30	질의응답
18:30-20:00	만찬

□ 발표 내용 (발표 자료 별첨)

- (발표 1) 한국의 여성과학기술분야 인력 정책 검토: 한국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 및 법에 대해 기관하고, 이에 대한 주요 성과와 한계를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함께 제시함.
- (발표 2) 여성 과학 기술자의 우세를 발위하다. 새로운 시대의 과학기술 경제 발전을 추진하다 :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과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발표함.

- (발표 3) 중국 여성 과학 종사자의 현황 및 정책: 중국 직업여성의 임금격차 현황과 여성과학기술자들이 겪는 성차별과 어려움,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해 공유함.

□ 주요 논의 내용

○ 질의응답 주요 내용

- 중국 여성들의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많은 중국 학생들이 임신한 상태로 학업을 진행하기도 하며 대부분 출산 후 다시 복귀하여 일을 진행함.
- 중국이 경제발전을 하면서 M자형 모형이 등장하면서 고학력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국여성들은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중국에서 조부모님의 지원이 있기 때문임. 중국은 산아제한 정책으로 가구 당 1인 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고수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 양쪽의 자녀가 1명에 그침 따라서 양조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임.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사회 현상이 표출되기 시작함. 또한 중국은 인재 등용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정책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성인력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검토가 크게 이슈와 되지 못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으로는 ‘중장기 과학기술발표계획개요’와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계획개요’ ‘중국여성발전개요’ 3가지 정책을 지목하였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을 제안함.
- 중국의 경우 정년에 성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를 정년으로 5년의 격차가 존재함. 분야별로 조금 상이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를 따르고 있음.

○ 향후 중국 과학기술인 현황 조사를 위한 협력 논의

- 중국 내 여성과학기술인 대상 설문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설문을 진행할 때 실무적인 협조를 요청함.
- 8월 경 중국 내 설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의함.

○ 향후 중국 과학기술인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영역 검토

<논의된 설문영역(안)>

-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 소속 및 분야
- 현재 근로상태
- 일하는 상태(교수, 연구원, 또는 기업의 일반직 등)
- 학력(전공의 일치 여부: 학부-석사-박사 등)
- 연령, 기혼 또는 미혼(자녀 수)

○ 여성과기인의 경력개발현황

- 소속기관 여성과기인 현황(비중, 여학생비중 등)
- 대학-대학원과정에서의 진로선택의 요인
- 직장 취업 시의 애로점
- 직장 취업 이후 경력개발시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
-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 직장생활 현황

- 근로시간의 자율성과 성과에 대한 차별
- 근로상태변화과정(PM 또는 Co-worker등의 관계에서의 불이익)
- 임금상태(남성과 비교해서)
- 연구활동지원에 대한 성차별(연구비지원, 책임자 선정 등)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애로

- 가사활동으로 인한 노동시간 확보의 어려움(근로시간, 가사시간 비중)
-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
- 출산육아 시 연구 활동에 대한 부담 해소 여부(STC여부 등)

○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인식

- 여성과학기술인을 지속적으로 양성·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여부(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 왜 남성과과학기술인 보다 지체되면 안되는가?)
- 중국은 과학기술인력양성과 관련한 정책의 인식 및 체감 여부?(있다면 구체적 정책 사안은?)
- 여성만 특화한 별도의 과학기술인력양성이라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존재하는지?(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 대학(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여성과학기술인과 관련한 경력개발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는지 여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인가?
-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별도 정책 필요여부

○ 한중(동아시아)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가능한

협력체계에 대한 인식

- 아시아 국가들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네트워크 필요성 여부
- 협력 연구 및 지식 공유를 통한 새로운 분야의 과학적 공헌 여부

□ 사진



여성과학기술인 인력양성 한·중 세미나 사진

III 현지 공동연구진 회의

□ 일시 및 장소: 2019. 6. 17(월), 20:00~22:00 / Les Suites Orient bund Shanghai, VIP meeting Room (2F)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조혜승 부연구위원
- 중국 참가자: 상하이 교통대학교 이국봉 교수(본원 객원 공동 연구원)

□ 주요 논의내용

- 중국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가용 가능한 통계 논의
 -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통계는 제한적이나, <China Statistical Year Book>의 현재 가용 가능한 통계 내에서 실태를 분석해 보기로 함.

(과학기술 R&D 인력 성별통계, 2017년 기준)

(명, %)

항목	R&D 인원(총)	여성	정규직	박사	석사	학부
전국	6213627	1660416	4204502	416912	919915	2712150
유형별						
기업	4626672	1030835	3423624	43327	344623	2293577
	74.5%	62.1%	81.4%	10.4%	37.5%	84.6%
#지정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	4045058	902163	2983752	38363	298225	1885944
	0.87	0.88	0.87	88.5%	86.5%	82.2%
R&D 기관	462213	154457	368573	81962	164660	148483
	7.4%	9.3%	8.8%	19.7%	17.9%	5.5%
고등교육	913590	392795	335935	278341	372564	231188
	14.7%	23.7%	8.0%	66.8%	40.5%	8.5%
기타	211152	82329	76370	13282	38068	38902
	3.4%	5.0%	1.8%	3.2%	4.1%	1.4%
지역별						
동부지역	3925007	1033266	2769374	249539	538766	1677181
	63.2%	62.2%	65.9%	59.9%	58.6%	61.8%
중부지역	1112803	273099	714422	66043	149882	497090
	17.9%	16.4%	17.0%	15.8%	16.3%	18.3%
서부지역	874589	256227	529548	66225	162876	397878
	14.1%	15.4%	12.6%	15.9%	17.7%	14.7%
동북지역	301228	97824	191158	35105	68391	140001
	4.8%	5.9%	4.5%	8.4%	7.4%	5.2%
주요 도시별						
베이징	397281	136525	279990	75091	85941	175468
	6.4%	8.2%	6.7%	18.0%	9.3%	6.5%
상하이	262299	73298	189101	28182	43257	129743
	4.2%	4.4%	4.5%	6.8%	4.7%	4.8%

(과학기술 R&D 인력 중 대학원생 성별통계, 2017년 기준)

(명)

항목	졸업생 수			모집인원 수			재학생 수		
	대학원생	박사	석사	입학생	박사	석사	재학생	박사	석사
학과별 대학원생 수									
(총합)	578045	58032	520013	806103	83878	722225	2639561	361997	2277564
		10.0%	90.0%		10.4%	89.6%		13.7%	86.3%
#여성	299813	22802	277011	423629	35073	388556	1278134	142173	1135961
	51.9%	7.6%	92.4%	52.6%	8.3%	91.7%	48.4%	11.1%	88.9%
#학사학 위	340479	55823	284656	401299	81178	320121	1289020	352437	936583
	58.9%	16.4%	83.6%	49.8%	20.2%	79.8%	48.8%	27.3%	72.7%
#전문학 위	237566	2209	235357	404804	2700	402104	1350541	9560	1340981
	41.1%	0.9%	99.1%	50.2%	0.7%	99.3%	51.2%	0.7%	99.3%

- 《여성과학기술인재 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女性科技人才队伍建设的意见)》 정책을 주요 분석 내용으로 협의함.
- 향후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대상 초점집단인터뷰(FGI) 대상 집단에 대해 기업, 연구원, 학교 등의 근무지로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협의함. 현지 공동연구자에게 추후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선정 및 섭외를 요청함.

IV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 및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19. 6. 18(화), 11:00~13:30,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인근 식당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조혜승 부연구위원,
- 원외 참가자: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이광호 부총영사(부부), 호효분 상임직원

□ 회의 내용

- 주 상하이 총영사관 이광호 부총영사에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전반적인 연구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한·중 실태분석 연구」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향후 주 상하이 총영사관과 본원의 젠더이슈 관련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 특히 한국의 ‘여성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부족’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문제’ 등과 관련하여 본원의 역할과 연구에 대해 논의함.
- 중국은 2015년 ‘투유유 박사’ 등 최초 여성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상하이는 시진핑의 국가도전비약에 따라 상해 IT집중 도시로 발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활약이 활발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과 취지에 깊이 공감함. 또한, 중국은 네트워킹을 중시하는 사회로써 주 상하이 총영사관의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점에서 향후 본원 연구에 대해 협력을 도모하기로 논의함.

□ 사진



주상해 총영사관 기관방문